

Chapter 5: Historic Premillennialism and the Victorious Church

역사적 전천년설과 승리하는 교회

I. APOSTOLIC CHRISTIANITY: NEW TESTAMENT CHURCH LIFE

사도적 기독교: 신약 교회의 삶

- A. IHOP-KC holds to the *historic premillennial and post-tribulation* view of the end times, yet with one addition, that being a victorious praying Church (Eph. 5:27; Rev. 19:7). Because of this element of victory, we sometimes refer to our view as *apostolic premillennialism*. We use the term *apostolic* to refer to the vision, values, victory, and lifestyle of the New Testament Church.

²⁷...that He might present her to Himself a glorious church... (Eph. 5:27)

⁷...for the marriage of the Lamb has come, and His wife has made herself ready. (Rev. 19:7)

캔사스시티의 아이합은 종말론에 관련하여 역사적 전천년설과 환난후 휴거설을 믿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첨가된 사실은,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다 (엡 5:27; 계 19:7). 승리의 개념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견해를 사도적 전천년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는 사도적이라는 용어를 비전, 가치, 승리와 신약 교회의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²⁷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엡 5:27)

⁷...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엡 19:7)

- B. Apostolic Christianity, or New Testament Christianity, will emerge in the end times as the Spirit raises up a victorious Church that operates in unprecedented unity, intimacy, and maturity (Mt. 16:18; 22:37; Jn. 17:21-26; Acts 2:17-21; Eph. 4:13; 5:27; Rev. 7:9; 12:11; 15:2; 19:7).

¹¹He Himself gave some to be apostles, some prophets, some evangelists, and some pastors and teachers, ¹²for the equipping of the saints... ¹³till we all come to the unity of the faith and of the knowledge [intimacy] of the Son of God, to a perfect man [maturity]... (Eph. 4:11-13)

사도적 기독교, 또는 신약교회는 종말의 때에 성령께서 전례 없던 하나됨과 친밀함과 성숙함으로 역사하는 승리하는 교회를 일으키시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 16:18; 22:37; 요 17:21-26; 행 2:17-21; 엡 4:13; 5:27; 계 7:9; 12:11; 15:2; 19:7).

¹¹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¹³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친밀함]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성숙함] 사람을 이루어... (엡 4:11-13)

1. **Unity:** Functioning as a deeply unified body of believers (Jn. 17:21-23).

하나됨: 성도들이 깊이 있는 연합된 몸으로 역할하기(요 17:21-23).

2. ***Intimacy***: Experiencing the knowledge of Jesus' heart, as His Bride (Rev. 22:17).

친밀함: 예수님의 마음을 신부로서 알고 체험하기 (계 22:17).

3. ***Maturity***: Walking in the Spirit's ***gifts*** (power), ***fruit*** (character), and ***wisdom*** (revelation).

성숙함: 성령님의 은사(능력), 열매(성품)와 지혜(계시) 가운데 행하기.

II. WHAT IS APOSTOLIC CHRISTIANITY?

사도적 기독교란 무엇인가?

- A. ***It is Jesus-centered***: it has a deep allegiance to Jesus, proclaiming His supremacy, glory, and worth.

예수님 중심적이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충성과 함께, 예수님의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 영광, 그리고 가치를 선포한다.

- B. ***It is Church-centered***: Jesus is building His Church locally and universally, which will openly triumph over all the powers of hell (Mt. 16:18). The local church is central to the purpose of God.

교회 중심적이다: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를 지역적으로 우주적으로 세우시고 계시며, 교회는 음부의 모든 권세를 공개적으로 이길 것이다 (마 16:18). 지역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에 중심을 차지한다.

- C. ***It is wholehearted***: Embracing holiness and discipleship as the Holy Spirit restores the first commandment to first place in the Church in relation to Sermon on the Mount lifestyles (Mt. 5-7).

전심을 다한다: 산상수훈의 삶 가운데 교회가 첫 계명을 최우선 순위로 살도록 성령님이 교회를 회복함으로 거룩과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마 5-7).

- D. ***It operates in supernatural power***: It heals the sick and operates in all the gifts of the Spirit.

초자연적 능력으로 행한다: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하며 아픈 자를 치유한다.

- E. ***It grows through prayer and intimacy with God***: Its ministries flow from a foundation of intimacy with God (Mt. 25:1-13), with persevering faith and prayer that releases the Spirit's power.

기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성장한다: 사역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기초로 하여 흐른다 (마 25:1-13)

- F. ***It possesses a missionary spirit***: It is focused on the harvest, impacting every area of society with righteousness and justice. There is continuity of some of our labors in the Millennium.

선교의 영을 가진다: 추수에 초점을 맞추며 사회의 모든 영역을 정의와 공의로 영향력을 발휘한다. 천년왕국에서 우리의 수고의 일부는 지속된다.



G. ***It embraces persecution:*** Persecution is part of spiritual warfare for the godly (2 Tim. 3:10-12).

핍박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핍박은 경건한 자들에게 있는 영적전쟁의 일부이다 (딤후 3:10-12)

H. ***It engages in God's purpose for Israel:*** The salvation of Israel is a significant aspect of God's end-time plan. Jewish and Gentile believers are unified in salvation as one new man (Eph. 2:15).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에 동참한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의 중대한 면을 차지한다.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은 새로운 한 사람처럼 구원안에서 연합된다 (엡 2:15).

I. ***It is free from the wrath of God:*** It is protected from God's wrath through Jesus (Rom. 8:1).

For God did not appoint us to wrath, but to obtain salvation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1 Thes. 5:9)

하나님의 진노로 부터 자유하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부터 보호된다 (롬 8:1).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케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살전 5:9)

III. THE MILLENNIAL KINGDOM 천년왕국

A. The Millennium is a literal 1,000-year period in which Jesus will rule the whole world from Jerusalem in righteousness, peace, and prosperity (Rev. 20:1-6). Jesus will govern in partnership with resurrected saints to establish a biblically-based social order (Mt. 19:28; 25:23; Lk. 19:17-19; 22:29-30; 1 Cor. 6:2-3; 2 Tim. 2:12; Rom. 8:17; Rev. 2:26-27; 3:21; 5:10; 20:4-6).

And they lived and reigned with Christ for a thousand years... They shall be priests of God and of Christ, and shall reign with Him a thousand years. (Rev. 20:4, 6)

천년왕국이란 1000년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정의와 평화와 번영 가운데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것을 지칭한다 (계 20:1-6). 예수님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성경적인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다스리실 것이다 (마 19:28; 25:23; 눅 19:17-19; 22:29-30; 고전 6:2-3; 딤후 2:12; 롬 8:17; 계 2:26-27; 3:21; 5:10; 20:4-6).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계20:4, 6).

B. The kingdom of God will be openly manifest worldwide, affecting every sphere of life (politics, economy, education, agriculture, media, technology, environment, social institutions, etc.). This period of worldwide blessing will be initiated by Jesus' second coming (Isa. 2:1-4; 9:6-9; 11:1-16; 65:17-25; Ps. 2; 110; Mt. 6:10; 17:11; 19:28; 28:19; Acts 1:6; 3:21; Rev. 20:1-6).

하나님의 왕국은 전세계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이며, 삶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교육, 농업, 미디어, 기술, 환경, 사회 기관 등)에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이 시기의 전세계적 축복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될 것이다 (사 2:1-4; 9:6-9; 11:1-16; 65:17-25; 시 2; 110; 마 6:10; 17:11; 19:28; 28:19; 행 1:6; 3:21; 계 20:1-6).

IV. DEVELOPING A VIEW OF THE END TIMES: WHY DOES IT EVEN MATTER? 종말론에 관한 체계화: 왜 이것이 중요한가?

- A. ***Ideas have consequences:*** Our view of the end times affects our ministry focus and prayer life. A biblical view of the end times strengthens the Church, but wrong views about it will hinder us.

생각은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의 종말에 대한 견해는 우리 사역의 초점과 기도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 종말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교회를 튼튼하게 하며, 잘못된 관점은 우리에게 지장을 줄 것이다.

- B. Often people accept one of three extreme views of the end times.

보통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 세 가지의 극단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1. ***Too negative:*** Thinking that all society is destined to fall into the hands of the Antichrist. This view leads people to draw back from changing society now. They say, “Why should we work to bring change to society if the darkness of the Tribulation is coming anyway?”

너무 부정적이다: 사회 전체가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견해는 사람들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부터 뒷걸음질 치게 한다. 그런 사람들은 “환난의 어두움이 닥칠텐데 굳이 왜 우리가 사회의 변혁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말한다.

2. ***Too positive:*** Thinking that most of society will be transformed before Jesus returns. This view ignores what Scripture says about the coming pressures in society and the necessity of Jesus returning to establish the fullness of the kingdom on earth. Though hope-filled desire is important, it must be tempered by Scripture. We must be loyal to God’s end-time plan and wisdom as seen in Scripture and resist exaggerated humanistic optimism.

너무 긍정적이다: 예수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견해는 세상에 다가올 압박에 관련한 성경 말씀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재림의 필요성을 무시한다. 소망으로 가득한 열정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종말에 관한 계획과 지혜에 충성하여야 하며, 허황된 인간적 낙관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3. ***Too vague:*** Thinking that it is impossible to know what the Scripture says about the end times, so why even try. They simply ignore the subject of the end times, thinking that the future will take care of itself; there is no urgency to be prepared in their understanding.

너무 막연하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대해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함으로써, 알려는 시도조차 않는다. 그들은 미래가 스스로 해결해줄 것이라 생각함으로써 종말의 주제를 간단하게 무시해 버린다. 그들의 견해로는 긴급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전혀없다.



V. THREE APPROACHES TO END-TIME PROPHECY

종말의 예언에 대한 세 가지 해석

- A. ***Premillennialism:*** This view teaches that Jesus returns ***before*** (pre-) His 1,000-year rule on earth. This is the only view that interprets end-time prophecy in a literal or face-value way.

전천년설: 이 해석은 예수님이 주님의 1,000년 지상 통치가 있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가르친다. 이 견해만이 종말의 예언을 문자적 또는 액면 그대로 해석한다.

- B. ***Postmillennialism:*** This view teaches that Jesus returns ***after*** (post-) the Millennium. It teaches that the Church establishes the Millennium by fully Christianizing the world before Jesus returns.

후천년설: 이 해석은 예수님이 천년의 시간이 끝난 **후에** 재림하신다고 가르친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교회가 세상을 완전히 기독교화함으로 천년의 시간을 이룬다고 가르친다.

- C. ***Amillennialism:*** This means ***“no millennium.”*** This view teaches that Jesus’ 1,000-year reign is not a literal earthly reign, but merely a spiritual victory over sin in the heart of the believer. Most amillennialists limit the kingdom on the earth as being mostly in the heart of a believer.

무천년설: 이것은 천년의 시간이 없다고 가르친다. 이 해석은 예수님의 1,000년 통치가 문자 그대로의 지상 통치가 아니고, 다만 신자의 마음 가운데 죄를 극복하는 영적인 승리라고 가르친다. 대부분의 무천년주의자들은 지상의 왕국을 신자의 마음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VI. AMILLENNIAL VIEW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천년주의의 관점

- A. ***The strength of this view*** is in its focus on the spiritual triumph of the Church over sin and Satan before the Lord returns. Some amillennialists believe in a victorious end-time Church.

이 관점의 장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탄과 죄로부터 교회의 영적 승리에 집중하는 것에 있다. 어떤 무천년주의자들은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교회를 믿는다.

- B. ***The weaknesses of this view*** are found in interpreting much end-time prophecy as symbolic or figurative and in embracing replacement theology, which teaches that the Church replaces Israel as heir to Israel’s prophetic promises. Some amillennialists believe in a Tribulation with a literal Antichrist, but most reject this view.

이 관점의 약점은 마지막 때의 예언의 대부분을 상징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해석하며, 이것은 교회가 이스라엘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언적 약속을 받는 상속자라고 주장하는 대체신학을 담고 있다. 몇몇 무천년주의자들은 문자적 적그리스도와 대환난을 믿고 있으나, 대부분은 이런 관점을 거부한다.

- C. Most amillennialists have a preterist view of the end times (preterit is a verb tense that describes a past action). Preterism teaches that end-time prophecy has already been fulfilled in the past. Some amillennialists are what I call “eschatological cessationists” in that they do not believe the power of God will be manifest in the events related to the Tribulation and the Millennium.

대부분의 무천년주의자들은 마지막 때에 관해서 과거주의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과거형은 과거의 활동을 묘사하는 동사시제이다) 과거주의는 마지막 때의 예언은 이미 과거에 다 성취되었다고 가르친다. 어떤 무천년주의자들은 내가 “종말론적 중지론자들” 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대환난과 천년왕국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 D. Many preterists do not believe in an end-time Tribulation or Antichrist, nor do they interpret the book of Revelation in a literal way. Preterism sees most of the prophecies in Revelation (the Tribulation, Antichrist, etc.) as being fulfilled when Israel was at war with Rome (66–70 AD) and/or sees them as merely symbolic—as a picture of spiritual conflict through Church history.

대부분의 과거주의자들은 마지막 때의 대환난이나 적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계시록의 문자적 해석을 믿지 않는다. 과거주의는 계시록의 대부분의 예언들(대환난, 아마겟돈,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등)을 이스라엘이 로마와의 전쟁(AD 66–70)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리고 이 예언들을 단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영적 전쟁의 그림으로서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 E. Amillennialists see end-times prophecies (Mt. 24; Lk. 21) as completely fulfilled in 70 AD. It is true that the events of 70 AD were a partial fulfillment of these prophecies, but they are also meant to be understood as a significant prophetic foreshadowing of end-time events.

무천년주의자들은 마지막 때의 예언들(마 24; 눅 21)을 AD 70 에 완전히 완성되었다고 본다. 이 예언들이 AD 70년의 사건으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마지막 때의 사건들에 대한 중요한 예언적 징조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VII. POSTMILLENNIAL VIEW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대한 후천년주의의 관점

- A. ***The strength of this view*** is found in their zeal for the Cultural Mandate—working to see every area of society transformed (government, economy, education, media, arts, etc.).

이 관점의 장점: 사회 모든 분야 변혁을 추구하는 문화적 사명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 경제, 교육, 미디어, 예술 등)

- B. ***The weakness of this view*** is similar to the weakness of amillennialism: end-time prophecies are usually interpreted symbolically instead of literally, and it embraces replacement theology.

이 관점의 약점은 무천년주의의 약점과 비슷하다. 마지막 때의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보다 보통은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것도 대체신학을 담고 있다.

- C. Most postmillennialists are preterist; they see many end-time prophecies as fulfilled in 70 AD, rather than being partially fulfilled at that time as a prophetic foreshadowing of end-time events.

대부분의 후천년주의자들은 과거주의자들인데, 이들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종말의 사건들에 대한 예언적인 예표로서,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고 이미 AD 70년에 이루어졌다고 본다.



- D. Postmillennialism is an overly optimistic eschatology. It was most popular during the Victorian age (about 1840–1900) when the Spirit was restoring the truths of social action and human rights. At that time, many believers thought things would just get better and better until Jesus returned. However, the two world wars in the 20th century caused postmillennialism to fall out of favor. For example, Wheaton College was founded with postmillennial views, but switched to premillennialism after two world wars proved postmillennial optimism to be wrong.

후천년주의는 낙관주의적 종말론이다. 이것은 빅토리아 시대(약 1840–1900)에 널리 유행했었는데, 그 당시는 성령께서 인권과 사회활동의 진리들을 회복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 당시 많은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더욱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서, 휘튼 대학은 처음 창설되었던 시점에서는 후천년을 믿었으나,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 후에 후천년적 낙관주의가 잘못되었다고 증명된 다음은 전천년주의로 바꾸었다.

VIII. THE PREMILLENNIAL VIEW OF THE KINGDOM: 2 DIFFERENT APPROACHES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천년주의의 관점: 두 개의 다른 접근 방법

- A. Premillennialists believe that Jesus will return to rule the earth for a Millennium (1,000 years). The strength of this view is found in its literal interpretation of Scripture and end-time prophecy. The two common yet differing approaches are *historic* and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전천년주의는 예수님께서 천년동안(1,000년) 지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이 관점의 장점은 마지막 때의 예언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이다. 다르지만 같은 점이 있는 두 가지 접근은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이다.

- B. ***Historic Premillennialism:*** Most teach a post-tribulation rapture (Jesus will return “after” the Tribulation) and a literal interpretation of end-time prophecy and honor God’s purpose for Israel.

역사주의적 전천년: 대부분의 후환난 휴거(환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와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며, 마지막 때의 예언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 C.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All teach a pre-tribulation rapture (Jesus will return “before” the Tribulation) and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end-time prophecy and honor God’s purpose for Israel. Most do not believe that the Church will be used to transform society, operate in the gifts of the Spirit or win the great end-time harvest of souls? Most emphasize the view that the Church is a parenthesis in the history of redemption; there is little or no emphasis on the place of social or political activity in the Church.

세대주의적 전천년: 이들은 환난전 휴거(환난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를 믿고 있으며,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하며, 마지막 때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관점을 가진 대부분은 교회가 사회를 변혁할 것이며,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며, 마지막 때의 영혼의 대추수를 믿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는 구속의 역사에서 있어서 하나의 삽입구적 역할을 하기에, 교회의 정치적 사회적 사역을 강조하지 않는다.

- D. This is a new theology that was systematized in the 1830s by John Nelson Darby. It is called dispensational because it teaches that God has related differently to His people in seven dispensations or seasons of history. It often includes: (1) two covenants pertaining to salvation— one for Israel and one for the Church; (2) a literal interpretation of Scripture; (3) premillennial views; (4) pretribulation; (5) imminency that sees the possibility of an “any moment” rapture.

이 것은 1830년대에 존 다비와 넬슨 다베에 의해서 체계화된 새로운 신학이다. 이것은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불리운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7개의 세대 또는 시기를 구분하고, 하나님은 이때 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역사하셨다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보통 (1)교회와 이스라엘의 구원에 적용되는 두개의 언약 (2)성경의 문자적 해석 (3)전천년적 관점 (4)전환난주의 (5)언제든지 휴거가 가능하다고 하는 임박함을 포함하고 있다.

- E. Today, some who hold dispensational views reject some of the early beliefs of their movement.

오늘날 세대주의를 믿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 운동의 초창기에 가졌던 믿음을 거부하고 있다.

1. Classical Dispensationalism (1850–1950s) emphasizes the view that the Church is a parenthesis in the history of redemption. They do not emphasize social transformation.

고전적 세대주의(1850–1950년대)는 교회는 구속사에서 하나의 삽입구임을 강조한다. 그들은 사회적 변혁을 강조하지 않는다.

2. Revised Dispensationalism (1950–1980s) rejects the idea of two new covenants (for Israel and the Church), but sees their distinction continuing throughout eternity.

수정적 세대주의 (1950–1980년대)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위한 두개의 언약을 거부하고, 영원속에서 계속되어지는 차이점을 본다.

3. Progressive Dispensationalism (1980s–present) refers to the “progressive” relationship of the successive dispensations to one another, and to their being progressively fulfilled today. They teach that the “people of God” is made up of both Israel and the Church.

점진적 세대주의(1980년대~현재)는 다른 세대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세대들의 점진적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점진적으로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와 이스라엘로 이루어져있다’ 라고 가르친다.



IX.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 A. *The strength of this view* is found in its literal interpretation of end-time prophecy and in embracing God's purpose for Israel in the end times.

이 관점의 장점은 마지막 때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며,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다.

- B. *The weaknesses* is that most who hold this view do not believe that the Church will be used to transform parts of society, or that it will operate in the gifts of the Spirit, win a great harvest of souls or walk in end-time victory. It also sees two new covenants pertaining to salvation—one for Israel and one for the Church. (Dispensationalists have differing views on this).

이 관점의 약점은 이 관점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변혁을 위해서 사용될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과 영혼의 대추수를 감당할 것과, 마지막 때의 승리로 걸어갈 것을 믿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원을 위한 두가지 언약을 믿고 있다. (그러나 세대주의 자들에 따라서 이것에 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 C. One weakness common to all dispensationalists is in teaching on the pre-tribulation rapture of the Church. This view undermines the need to urgently prepare the Church for the hardship of the Tribulation. It does not see the role of Gentile believers to provoke Israel to jealousy and salvation by standing with them in persecution during the Tribulation. Most see Israel's salvation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two witnesses and the 144,000 sealed Israelites (Rev. 7). The doctrine of imminency (Jesus returning at any moment) does not emphasize the need for a long-term plan to impact society. This view often minimizes the Church's role in the end-time harvest.

모든 세대주의자들이 가진 한가지 공통적인 약점은 교회의 환난전 휴거를 가르치는 것에 있다. 이 관점은 대환난의 어려움을 대비하여 교회에게 긴급한 준비의 필요함을 약화시킨다. 이 관점은 이방인 신자들로 하여금 대환난 기간동안 핍박받는 이스라엘과 함께 함으로서 그들이 시기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144,000명의 인 맞은 이스라엘 민족 (계 7) 과 두 증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입박설(언제든이 재림할 수 있는 예수)는 사회에 영향을 주는 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약화시킨다. 이 관점은 종종 마지막 대 부흥에서 교회의 역할을 최소화시킨다.

- D.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is an overly pessimistic eschatology.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 매우 비관적인 종말론이다.

1. The common response is escapism (why prepare and work hard if we will soon be raptured) along with fatalism and defeatism (society cannot be changed so why try). Some with this view see the Church's mandate as being like a life raft, limited to delivering people from drowning (preaching only salvation), while abdicating our kingdom responsibility to call society out of its current darkness.

보편적인 반응은 숙명론과 패배주의(사회는 변화될 수 없는데, 왜 굳이 시도해야 하는가?)이며 현실 도피(우리가 곧 휴거한다면 왜 굳이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로 나타난다. 어떤 이들은 이 관점을 구명보트로서 교회의 사명을 보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을 물에 빠져 죽는 것에서 구해내는 것에 제한함으로서(오직 영혼의 구원만을 가르침으로서), 현재의 어둠에서 사회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책임을 가진자로서의 소명을 사라지게 한다.

2. This view can lead to a lazy disengagement instead of urgency to be prepared in prayer with fasting as we seek for spiritual breakthroughs in the kingdom.

이 관점은 자칫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돌파를 하며 긴급함을 준비하게 하기 보다, 영적으로 게으름과 편안함으로 이끌 수 있다.

3. Note: some dispensational premillennial churches are very active in soul-winning.

노트: 어떤 세대주의적 전천년 교회들은 영혼 구원에 매우 적극적이다.

X. HISTORIC PREMILLENNIALISM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

- A. *The strength of this view* is found in its literal interpretation of end-time prophecy, in preparing the Church for future persecution, and in our responsibility to provoke Israel to salvation.

이 관점의 장점은 종말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미래의 핍박을 준비하게 하며,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도록 촉진하는 이방인들의 책임에 있다.

- B. *Its weakness* is that some who hold this view do not believe that the Church will grow strong in prayer that will result in the great harvest and in end-time victory and power as she functions in her bridal identity (Rev. 22:17). Note: some with this view do see a victorious praying Church.

단점은 교회가 신부의 정체성(계 22:17)으로 사역할 때, 교회가 기도로서 대추수와 마지막 때의 승리와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다. 어떤 이들은 승리를 거두는 기도하는 교회를 보기도 한다.

- C. IHOP-KC holds to the *historic premillennial and posttribulation* view of the end times, yet with one addition, that being a victorious praying Church (Eph. 5:27; Rev. 19:7).

캔자스 시티 아이함은 종말에 관해서 **역사주의적 전천년**과 **후환난설**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승리를 거두는 기도하는 교회를 더하고 있다.



XI. HISTORIC PREMILLENNIALISM AND VICTORY: APOSTOLIC PREMILLENNIALISM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와 승리: 사도적 전천년주의

- A. *Apostolic premillennialism* is a term that we sometimes use to speak of our historic premillennialist view, yet with the addition of the victorious Church, the end-time prayer movement, and the bridal paradigm of the kingdom. The word *apostolic* emphasizes the values, vision, power, and lifestyle of the New Testament Church in the end-time crisis and persecution.

사도적 전천년은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가진 역사주의적 전천년적 관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거기에 승리하는 교회와, 종말의 기도 운동과, 하나님 나라의 신부의 정체성을 더한 것이다. 사도적이라는 용어는 종말의 위기와 핍박아래에서의 가치들과, 비전과 능력과 신약의 교회의 삶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이다.

- B. *The strength of this view* is found in combining the biblical strengths of postmillennialism and amillennialism with historic premillennialism and the call to victory and wholeheartedness.

이 관점의 장점은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 성경적인 장점을 합쳐놓은 것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전심과 승리로 초청하는 것에 있다.

- C. *A victorious Church* that attains to unity, intimacy, and maturity, resulting in the greatest revival in history (Eph. 4:13). This prophetic praying Church will walk in great power as it is used to bring in the end-time harvest and to transform society in various places.

승리하는 교회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흥을 일으킬 연합됨, 친밀함, 그리고 성숙함을 담고 있다. 이 예언적 기도하는 교회는 강력한 능력을 행할 것이며,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의 변혁과 종말의 대추수를 가져오는데 사용되어질 것이다.

- D. *A wholehearted Church* that walks in “Sermon on the Mount lifestyles” of self-denial and serving, giving, blessing, praying, and fasting as seen in the New Testament Church (Mt. 5-7). This lifestyle will be energized by encountering Jesus as the Bridegroom God (Rev. 22:17).

전심을 다하는 교회는 신약교회에서 볼 수 있는 자기 부인과 섬김, 베품, 축복, 기도, 그리고 금식의 “산상수훈의 삶의 양식”을 따라 살것이다. 이 삶의 양식은 신랑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서 더욱 활기차게 될 것이다.

- E. A *relevant Church* that sees the *continuity* of some of our labors in impacting society now (righteous legislation, education, etc.) with the work of Jesus in the Millennium. All that is unrighteous will be dismantled and then re-established in righteousness in the Millennium. However, righteous legislation in society in this age will not need to be replaced. Works in society built on godliness and justice will last beyond the shaking of the Tribulation judgments.

연관성있는 교회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한 현재 사회(정의로운 입법, 교육등)에 영향을 줄 우리의 수고의 연속성을 본다. 의롭지 않는 모든 것은 해체될 것이며,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에서 다시 의롭게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 사회에서의 의로운 입법은 다시 제정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거룩함과 정의위에 이루어질 사회 활동들은 대환난 심판의 흔들림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XII. TWO COMMON OBJECTIONS TO HISTORIC PREMILLENNIALISM

역사적 전천년주의에의 두 가지 공통적인 반론들

- A. Some claim that the Holy Spirit is the restrainer that is removed when the Church is raptured. Paul prophesied the removal of a “someone” or “something” that restrains the Antichrist from being revealed (2 Thes. 2:6-8).

어떤 이들은 성령님을 막는자로 보면서, 교회가 휴거될 때에 성령님은 지상에서 옮겨지신다고 주장한다.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못하도록 막는 “막는 자” 또는 “막는 것”의 옮겨짐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살후 2:6-8)

1. Paul described the restrainer of the increase of sin and the release of the Antichrist as a “what” (neuter gender in 2:6) and as a “He” (masculine gender in 2:7). Paul taught that governing authorities are appointed by God to restrain evil (Rom. 13:1-4).

바울은 죄가 증가하는 것의 억제자와 “막는 것” (2:6에서 중성으로 사용) 과 “막는 자” (2:7에 남성으로 사용) 로 사용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묘사하고 있다. 바울은 악을 막기 위한 정부적인 권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된다고 했다.

2. I believe the restraining force that is removed is a combination of a “what,” which I believe to be the existence of national governments that will not allow that Antichrist’s government to emerge, and a “He,” which I believe to be God and His sovereign decree to bring the ten-nation confederation into unity with the Antichrist (Rev. 17:17).

나는 막는 힘이 옮겨진다는 것은 “막는 것” 과 “막는 자” 이 합쳐진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무엇이든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출현하지 않도록 막는 국가정부의 존재라고 믿는다. 또한 나는 “어떤 사람” 이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10개국 연합이 적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는다(계 17:17).

- B. Some claim that we will not go through the Tribulation because “we are not appointed unto wrath” (1 Thes. 5:9). It is true—the Church is not appointed to wrath. The wrath of God in the Tribulation will be released to destroy the Antichrist’s empire, not the Church.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진노아래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살전 5:9)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회가 진노 아래 놓여 있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대환난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교회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파멸하기 위해서 나타날 것이다.